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양상 분석

허상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카카오톡의 매체적 특성
- III. 카카오톡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 IV. 성별에 따른 언어적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카카오톡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바탕으로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카카오톡 언어는 메신저로서 준구어적인 성격이 강하며, 관계 형성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매체이다. 카카오톡에 나타난 음운 및 표기적 특성에서는 발음이나 표기면에서 쉽게 간단하게 사용하려는 경제성의 관점과 재미와 대화 분위기를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어휘 및 기타 특징으로는 의성어, 이모티콘, 문장부호 사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비대면 대화에서 알 수 없는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나타내며 대화를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통사적 특징으로는 발화 단위 형식의 다양함, 발화 단위를 끊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성별에 따른 음운 및 표기적 특징 차이를 살펴보면, 된소리, ‘ㄹ’ 첨가, 오타 사용은 남학생에서 높게 나타났고, ‘ㅇ’ 첨가, ‘ㅅ’ 탈락 현상은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어휘 및 기타 특징에서 의성어 사용은 성별로 대별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모티콘 사용에서는 여학생은 다양한 유형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반면, 남학생은 한글 자모 이모티콘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비속어는 남학생이, 유행어는 여학생

* 인제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다. 통사적 특징에서는 남학생들이 문장 끊어 쓰는 빈도가 높았으며, 친구관계일 때 빈도가 높았다. 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이 전통적인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은 대화자의 성별, 관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해볼 수 있다.

주제어: 카카오톡(KakaoTalk), 성별어(gender language), 음운 첨가(phoneme addition), 모음 변형(vowel modification), ‘ㅅ’ 탈락(‘ㅅ’ elision), 발화단위(utterance unit), 의성어(onomatopopia), 이모티콘(emoticon), 문장부호(punctuation), 비속어(slang), 유행어(buzzword)

I. 머리말

이 연구는 카카오톡에 나타난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카카오톡 언어의 특징을 밝히고,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분석하여 논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카카오톡 언어는 일반적인 통신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즉시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글말로 쓰지만 입말의 성격이 강하다. 카카오톡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상 대화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부담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언어차가 있듯이, 통신상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언어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언어 체계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점차 사라지며 서로 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자료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다. 2014년 3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총 21,076개의 발화 단위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14명(남 8명, 여 6명)의 21,076개의 발화 단위¹⁾ 중 일정한 남녀 관계와 발화 단위 수가 확보되는 자료제공자 6명(남 4명, 여 2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대화자는 남 6명, 여 6명 총 12명이다.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대화 대상자는 선후배, 친구, 연인, 가족이다. 그 중 일정한 남녀 대화가 나타나는 선후배, 친구, 연인 관계를 대상으로, 관계별 500개의 발화 단위, 총 1,500개의 발화 단위²⁾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언어 사용을 분석한 허상희(2016)의 후속 연구로,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II. 카카오톡의 매체적 특성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채팅 서비스이다. 카카오톡의 사용자 수는 2016년 2분기 기준 국내 4,150만 명이며,³⁾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하루 평균 카카오톡 접속 횟수는 24회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⁴⁾ 카카오톡은 무료로 음성 또는 영상 통화를 제공하며,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일대일 및 그룹 채팅 기능을 지원

1) 이 글에서는 발화 단위를 형식에 상관없이 메시지가 작성되어 전송하는 단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2) 남 6명, 여 6명 즉, 12명의 1,500 발화 단위에서 남학생의 발화는 690개(46%), 여학생의 발화는 810개(54%)로 나타났다.

3) 성상훈 기자, 가벼워지는 네이버 vs 무거워지는 카카오, 아이뉴스 24, 2016.9.12.

4) 원수연 기자, 네이버 앱스토리, 2015년 9월호.

한다. 이 밖에 대화중에 검색할 수 있는 채널, 기사를 볼 수 있는 콘텐츠 채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경제성’과 ‘편리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민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문자 메시지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동시에 소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톡은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허상희, 2016:105-106). 따라서 카카오톡 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문자로 이루어지지만, 그 속성은 대화라는 측면에서 카카오톡에서 사용되는 ‘언어’에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통신 언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를 뜻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자 언어를 총칭한 것이다. 통신 언어는 온라인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판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적고자 하기에 공통적인 언어 현상이 나타난다. 카카오톡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카카오톡이라는 통신 매체를 통한 것이기에 당연히 통신 언어이다. 그래서 카카오톡 언어 역시 일반적인 통신 언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매체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은 ‘카카오톡’이라는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카카오톡은 매체적 기준에 따를 때, 메신저(messenger)이다. 메신저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는 메신저와 같지만 상대방의 확인 여부를 알 수 없고(전자우편의 경우는 수신 확인 가능),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메신저는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과 달리 상대방의 온라인 상태를 알 수

있고, 메시지에 대해 즉각 응답할 수 있다.

둘째, 카카오톡은 준구어적인 특성이 강하다. 카카오톡은 문자로 적지만 대화체의 형식으로 진술하기에 구어적인 특성을 갖는다. 상대에 따라 경어법을 다르게 사용하며, 문장 성분 생략, 격조사 생략 등 통사론적, 화용론적 층위에서 구어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한 문자로 적는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화를 생동감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의성어나 의태어, 이모티콘 등을 활발히 이용한다.

셋째, 카카오톡은 관계 형성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적(私的)⁵⁾인 매체이다. 매체는 사용 목적, 관계 맺기, 정보 유형, 정보 성격 등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관계 형성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예를 들어, 트위터의 경우 관계 형성보다는 정보 공유에 더 초점이 있으며, 관계 맺기의 경우 상대방이 수락을 하여야 소통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주로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마치 일상의 대화처럼 말을 주고받는다. 대화의 주제도 안부 묻기, 식사 메뉴 정하기, 고민 상담 등 아주 다양하다. 잡담식 대화가 주(主)를 이루고 빠르고 간편하게 적고자 하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발화 단위가 짧으며 오타가 많은 편이다.

카카오톡 언어는 통신 언어의 일종으로, 통신 언어의 전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톡 매체가 가지는 메신저의 즉시성, 준구어성, 사적인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언어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5) 카카오톡은 대중적인 메시지로써 보편화되어 있어서 업무 지시나 공적인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톡이 '사적'인 매체라 함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Ⅲ. 카카오톡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이 장은 카카오톡의 성별적 사용 특성을 분석하기 전에 허상희(2016)을 바탕으로 카카오톡에 나타난 전반적인 언어적 특징을 언급하고자 한다.⁶⁾

1. 음운 및 표기적 특징

통신 언어의 음운 및 표기적 특징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음운 및 표기적 특징⁷⁾

- ㄱ. 된소리: 땀겨, 알앗쑈, 쫘, 오빠꺼, 갈꺼야
- ㄴ. ‘ㄹ’ 첨가: 올, 그떨려고, 먹을라공, 안갈라고
- ㄷ. ‘ㅇ’ 첨가: 모르겟넹, 엳, 연락주세용, 짱이당
- ㄷ. 모음 변형: 머야, 담에 바, 배고프당, 안되여, 종구
- ㄹ. ‘ㅅ’ 탈락: 모르겟다, 잇을텐데, 되겟나, 기분탓이겟지
- ㅂ. 오타
 - ㅂ-1.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 월요닐, 지땀아, 대기쫘, 괜찮아ㅇ·
 - ㅂ-2.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 혼자오던지, 어제밤...

된소리 현상은 사투리의 영향, 지식 부족에 의한 표기, 통신 분위기를 위한 경우, 실제생활에서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첨가는 ‘ㄹ’을 첨가함으로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경우와 지식

6) 연구 대상이 같아 불가피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음과 예시는 해당 연구 대상의 예시들로 바꾸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7) 여기에 제시되는 예시는 원문 그대로 옳김을 밝힌다. 대화자의 이름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바꾸었다. 필자가 필요한 경우 밑줄을 긋기로 한다.

부족에 의해 잘못 적은 경우가 있다. ‘ㅇ’ 첨가의 경우, 본래의 형식에 ‘ㅇ’을 첨가함으로써 통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음 변형의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이중 모음을 단모음화하는 경우와 모음을 변형하여 통신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ㅅ’ 탈락 현상은 쌍자음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자판을 더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오타는 자판상에서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와 맞춤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기는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가 있다.

〈표1〉 음운 및 표기적 특성의 사용 정도

음운 및 표기적 특성	빈도(비율)
된소리	70(4.7%)
‘ㄹ’ 첨가	19(1.3%)
‘ㅇ’ 첨가	218(14.5%)
모음 변형	104(6.9%)
‘ㅅ’ 탈락	88(5.9%)
오타	141(9.4%)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1500(100%)

자료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음운 및 표기적 특징으로는 된소리, ‘ㄹ’ 첨가, ‘ㅇ’ 첨가, 모음 변형, ‘ㅅ’ 탈락, 오타이다. 이들의 사용 정도는 ‘ㅇ’ 첨가(14.5%)>오타(9.4%)>모음 변형(6.9%)>‘ㅅ’ 탈락(5.9%)>된소리(4.7%)>‘ㄹ’ 첨가(1.3%) 순으로 나타났다. ‘ㅇ’ 첨가는 ‘ㅇ’을 첨가함으로써 비대면 대화에서 대화의 분위기를 경쾌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오타는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와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카카오톡은 상대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자판을 빨리 치려다 보니 다른 매체에 비해 오타가 많은 편이다. 모음 변형은 대부분 모음을 단모음화하는 경제성의 원칙을 따르나 오히려 과장해서 이중모음으로 표현해 대

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만들려는 유희의 목적도 있다. ‘ㅅ’ 탈락 현상은 경제성의 관점에서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된소리 현상은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거나 부산 지역의 사투리 영향으로 판단된다. ‘ㄹ’ 첨가는 실제 대화에서도 오류 표현으로 자주 지적되는데, 지식 부족에서 나온 경우이거나 사투리 영향으로 보인다. 음운 및 표기적 특성에서는 발음이나 표기면에서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려는 경제성의 관점과 재미와 대화의 분위기를 위한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함을 알 수 있다.

2. 어휘 및 기타 특징

어휘 및 기타 특징으로는 의성어, 이모티콘, 문장부호, 비속어 및 유행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1) 의성어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다. 카카오톡은 비대면(非對面) 대화이기에 화자의 감정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할 수 없다. 이러한 화자의 감정과 느낌을 의성어를 통해서 나타낸다.⁸⁾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의성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2) 의성어의 사례

뽕, 아, 아나, 아놔, 아싸, 아웅, 악, 앓, 야, 어머, 오, 울, 오오, 오왕, 오잉
오잉, 와, 읊, 우와, 으, 음, 쿵, 키키, 하, 헐, 헤헤, 헤헤헤헝, 휴, 흐억,
흐엉, 흐흐, 흑, 흑흑, 흠, 히, 히히, 힝

8) 감탄사와 의성어는 소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이들 구분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 명확하게 처리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감탄사를 의성어의 범주에 넣어 논의하기로 한다.

자료에 나타난 의성어는 (2)와 같다. 의성어는 음운론적으로 변형되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표2〉 의성어의 사용 정도

	감탄사	전체 발화 단위
빈도(비율)	109(7.3%)	15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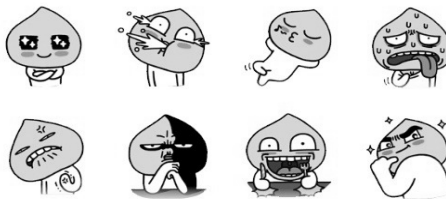
의성어는 비대면 대화에서 알 수 없는 화자의 감정이나 느낌을 대신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2) 이모티콘

이모티콘은 크게 조합형 이모티콘과 한글 자모 이모티콘, 그리고 완성형 이모티콘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3) 이모티콘(그림말)의 사례

- ㄱ. 조합형 이모티콘: ^, *^^, ^~, —, >.<, ♥♥, ??
- ㄴ. 한글 자모 이모티콘: ㅋㅋ, ㅎㅎ, ㅋㅋㄱㄱ9), ㅠㅠ, ㅏㅏ, ㄷㄷ10)
- ㄷ. 완성형 이모티콘:



9) 'ㅋㅋㄱㄱ'는 자관상 'ㅋㅋㅋㅋ'의 오타로 보인다. 'ㅋㅋㄱㄱ' 외에도 'ㄱㅋㅋㄱ', 'ㄱㅋㅋㅋㅋ' 등의 예시가 나왔다.

10) 'ㄷㄷ'는 의태어 '덜덜'을 초성만 딴 것이다.

먼저 (3ㄱ)은 문장부호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만든 조합형 이모티콘이다. (3ㄴ)은 한글 자모를 이용한 이모티콘이다. 주로 웃음소리와 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많다. 이들은 의성어나 의태어에 속하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림문자로 분류할 수 있다. (3ㄷ)은 완성형 이모티콘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대표적이다. 요즈음은 그래픽 이모티콘이 동적으로 바뀌었으며, 소리까지 더해졌다. 그래픽 이모티콘은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전달력이 글보다 빠르며, 말로 표현해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이 간결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표3〉 이모티콘의 사용 정도

유형 개수	조합형 이모티콘	한글 자모 이모티콘	완성형 이모티콘	이모티콘 빈도(비율) /발화단위 수(비율)
전체 발화단위 내 비율	48(3.2%)	898(59.9%)	58(3.9%)	1004(66.9%) /1500(100%)
이모티콘 내 비율	48(4.8%)	898(89.4%)	58(5.8%)	1004(100%)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한글 자모 이모티콘이 전체 발화 단위 중 59.9%, 거의 60%를 차지한다. 즉 10개의 발화 단위 중 6번은 ‘ㄱ’나 ‘ㅎ’, ‘ㅠ’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모티콘 내 사용 빈도를 봤을 때도 한글 자모 이모티콘이 89.4%를 차지한다. 한글 자모 이모티콘이 다른 이모티콘에 비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기호를 이용하여 만들거나 다른 창을 열어서 알맞은 이모티콘을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판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장부호

문장부호는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러한 문장부호

가 온라인상에서는 그 의미와 사용이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줄임표)’, ‘~(물결표)’ 정도이다.

글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마침표는 온라인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특히 발화 단위가 짧은 카카오톡에서는 더 그러하다. 연령이 낮을수록 하나의 발화 단위에 한 문장 이상 적는 경우는 드물다. 총 1,500개의 발화 단위 중 마침표가 사용된 경우는 9건인데, 그 중 마침표의 본래 기능으로 사용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4) 마침표의 쓰임① [선후배 관계]

선배: 니 말할수있나.

나: 노노ㅋㅋ

(5) 마침표의 쓰임②

ㄱ. 다른2학년선배들한테 너희.잃어버린거 복사본 찾아봐 ㅋㅋㅋㅋ

ㄴ. 아...카톡위에글읽고...저도. 놀랐어요...

ㄷ. 진짜 지미니랑 밥한번 살게요!!!

ㄹ. 오늘 녹화하는날이구나!

(4)는 마침표가 문장 뒤에 쓰인 경우이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은 문장이 끝나도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에서는 문장 간 경계를 스페이스바(사이띄개)로 대신하거나 엔터키(넣음쇠)를 쳐서 다른 행에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침표를 찍는 것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5)의 사례에서도 선배의 다른 발화에서는 마침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후배가 혼자 스페인 여행을 간다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침표로 강조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표의 사용은 (5)의 사례처럼 타자 시

잘못 찍힌, 오타로 여겨지는 것이 많다.

(6) 물음표의 쓰임

- ㄱ. 열한시에 만날래?
- ㄴ. 응??ㅎㅎ 어머니가 가져오셨구나
- ㄷ. 오빠 오늘 몇시에 가요???
- ㄹ. 저도 타고가면안되여??????????????????

물음표는 문장부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전체 문장부호 424개 중 물음표의 빈도는 54.5%에 이른다. 물음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까닭은 우리 말은 문장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억양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구분되는데, 억양을 알 수 없는 글말에서는 물음 표지가 있어야 정확한 물음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징적인 것은 물음표를 겹쳐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물음표를 겹쳐서 사용함으로써 의문을 강조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다.

(7) 느낌표의 쓰임

- ㄱ. 새해복많이받아!
- ㄴ. 응썩!!!
- ㄷ. 은지뭇까지 먹을게옵!!!
- ㄹ. 좋을것같은데!!!

(8) 물음표와 느낌표의 쓰임 [친구 관계]

TJ: 피트과외는
 A양: 피트과외 엄청들 하던데ㅋㅋㅋ
 TJ: 안구해져 잘 ㅋㅋ
 A양: 잉?!
 A양: 우리스터디오빠 셋다 하던데

느낌표는 본래 용법으로 쓰이는데, 특히 강조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느낌표 역시 물음표와 마찬가지로 겹쳐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8)의 사례처럼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불확실하거나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을 때 물음표와 느낌표를 겹쳐 사용한다. 이는 본래 문장부호의 사용법에 어긋난 표현이지만 기존의 문장부호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은아, 2007:70).

줄임표는 본래 용법과 같이 원래 말을 줄이거나 말이 끊길 때 말과 말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로 사용된다. 하지만 줄임표를 기호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운데점의 줄임표(...) 대신 마침표를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한다.11)

(9) 줄임표의 쓰임① [선후배 관계]

나: 오빠 (중략) 계산기 있으면 화,수 빌려주심 안될까요??TTT

선배: 내계산기도 너저랑 같은 수준이다...

선배: 근데 너저도 분수 되잖어

나: 그거 제거아니에요유

나: 제거는 더 단순한...

(10) 줄임표의 쓰임②

ㄱ. 음...음...그냥 술자리는 안갈라고ㅋㅋㅋㅋ

ㄴ. 오빠혹시아침에 시간있으니까...천연물.. 죽보...^^

부탁드릴게용~~

ㄷ. 아 맞네...

11) 국립국어원에서는 2015년 1월에 문장부호를 개편하였는데, 그 이유를, 줄임표의 쓰임을 “컴퓨터 입력을 고려하여 아래에 여섯 점(.....)을 찍거나 세 점(..., ...)만 찍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가운데점 대신 마침표(.)나 쉼표(,)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줄임표 외에도 마침표, 가운데점 등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쓰기 환경에 맞춰서 문장부호 역시 쓰기 편하게 바꾼 것”이라 하였다.(나운정 기자, ‘바뀐 문장부호, 얼마나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2015.5.12.)

ㄱ. 하.....¹²⁾형제야/마치고하면안되?

(9)와 (10)의 사례에서 줄임표가 말을 줄이거나 말과 말 사이를 이을 때 사용되었다. 줄임표를 사용함으로써 말을 흐리거나 말 사이의 간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일반적인 글말에서는 완성된 문장 형식을 갖추어야 하기에 특정한 목적 없이 줄임표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 글말에서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카카오톡 대화가 구어의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말을 끝맺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줄임표로 말과 말 사이를 잇는 것이다.

물결표는 일상적인 글말에서는 ‘내지’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글말에서는 문장 말미나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뒤에 사용함으로써 말을 길게 늘이는 장음(長音)의 효과를 준다.

(11) 물결표의 쓰임

- ㄱ. 바잉~
- ㄴ. 그렁쥬~?
- ㄷ. 선배~~~~~
- ㄹ. 월월에비용~~

(11)에서 물결표는 인사말, 물음, 부름말, 문장 뒤에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 말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특히 일반적인 글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물결표가 온라인상의 글말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비대면 의사소통에서 알 수 없는 어조를 물결표를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12) ‘/’ 기호는 발화단위가 바뀜을 나타낸다.

〈표4〉 문장부호의 사용 정도

종류 개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줄임표	물결표	문장부호 빈도(비율) /발화단위 수(비율)
	전체 발화단위 내 비율	9 (0.6%)	231 (15.4%)	29 (1.9%)	83 (5.5%)	
문장부호 내 비율	9 (2.1%)	231 (54.5%)	29 (6.8%)	83 (19.6%)	72 (17.0%)	424(100%)

문장부호의 사용 정도를 보니, 물음표>줄임표>물결표>느낌표>마침표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글말에서는 억양을 알 수 없기에 물음의 정확한 표지를 위해 물음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글말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줄임표와 물결표가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역시 온라인 글말에서 알 수 없는 화자의 감정, 어조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역으로 일반적인 글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마침표는 가장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짧은 발화 단위로 적으며, 발화 단위의 경계를 마침표가 아닌 다른 행에 적는 것으로 대신하며, 문장을 완성하여 적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글말과 비교할 때, 온라인상의 글말과 쓰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문장부호의 사용이다. 글말에서의 문장부호가 문장의 의미를 더하고 문장을 구분해주는 수단이라면, 온라인상의 글말에서는 이모티콘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장부호가 본디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확대하고 변형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부호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 겹쳐서 사용한다.

4) 비속어 및 유행어

비속어나 유행어는 언어 변화의 연장선에서 보면, 늘 존재해 왔다. 이들은 계층이나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12) 비속어의 사례

갈귀서, 개판이여, 툇끼, 발라버려라, 씹는, 찌다, 찌네

비속어의 사례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자료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비속어가 있는 대화를 자료에 첨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13) 유행어의 사례

개멋있다, 왕비짜다, 왕예뿌졌다, 짱난다, 짱부럽다, 짱이당, 찌네, 찌다, 찌어, 헐

(13)은 자료에 나타난 유행어이다. 유행어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유행어는 그 시대의 사회상에 따라 해학성, 풍자성을 띠는 까닭에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경박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유행어 중에서도 비속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주 사용되었다.

〈표5〉 비속어와 유행어 사용 정도

	비속어 및 유행어	전체 발화 단위
빈도(비율)	22(1.5%)	1500(100%)

비속어와 유행어 사례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속어는 자료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유행어는 제한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3. 통사적 특징

카카오톡은 문자로 쓰지만 대화체의 형식으로 진술하기에 구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든지, 이어서 적는 경우 등이 구어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문장을 완결하지 않고 마치는 경우가 많으며, 한 발화 단위에 문장을 종결하여 적지 않고 여러 단위로 끊어 적는 경우가 있다.

문장 차원에서 발화 단위의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발화 단위의 형식

- ㄱ. 아, 오, 헐, 아싸...
- ㄴ. 오빠, 아니요...
- ㄷ. 혼자오던(든)지, 저도 처음인택ㅋ...
- ㄹ. 나더 누구줘가지고(없다), 수물점심(어때)?...
- ㅁ. 아니안바쁨, 내이제일함...
- ㅂ. 나 내일 부산간다, 저 지금약대건물인데 마치면같이가요...

발화 단위를 구성하는 형식은 (14)에서 보듯이 감탄사 단독, 부름말, 대답말, 술어 생략, 명사형, 문장 등 다양하다. 또한 이를 문장 형식을 띠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다. 이처럼 발화 단위를 구성하는 문장 형식이 다양한 까닭은 카카오톡 대화가 대화체의 형식으로 쓰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발화 단위를 살펴보면 한 음절의 발화 단위에서부터

완전한 문장 형식의 발화 단위까지 다양하다.

(15)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16) ㄱ. 밥.

ㄴ. 밥을.

ㄷ. 밥 먹었어.

ㄹ. 난 밥 먹었어.

(15)의 물음에 대해 (16)과 같이, 한 음절이 하나의 발화 단위를 구성할 수 있고 어절, 문장 형식을 갖춘 꼴이 하나의 발화 단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7), (18)과 같이 하나의 문장을 여러 번 나누어서 적는 경우이다.

(17) 문장 끊음 사례 [친구 관계]

A양: 근데 나는 못봤는데

TJ: 오 ㅋㅋㅋ

A양: 친구가

A양: 봤는데

A양: 30은 안되보인다는데

A양: 과연 몇살일까

(18) 문장 끊음 사례 [연인 관계]

나 : 맞다 다 대문...어떻게여는지 알려주세요

가: 중간꺼누르고

가: 7876

가: 맨밑오른쪽

가: 맨위오른쪽

가: 집은 235900

(17)은 ‘근데 나는 못 봤는데 친구가 봤는데 30은 안 되어보인다는데 과연 몇 살일까’라는 문장을, (18)은 ‘중간꺼 누르고 7876 (누르고) 맬밑오른쪽 (누르고) 맨위오른쪽 (누르고) 집은 235900 (누르면 돼)’의 문장을 다섯 개의 발화 단위로 끊어 적었다.

그렇다면 하나의 문장을 왜 이렇게 나누어 적는 것일까. 그 까닭은 한 문장을 길게 적는 것보다 짧은 단위로 나누어 적는 것이 읽기에 쉽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문자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적 활동이다. 따라서 말을 듣는 청자 또는 글을 읽는 독자가 존재한다. 완성된 문장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문장을 작성하는 시간만큼 상대방은 기다려야 한다. 상대방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짧게 쓰고 전송하는 것이다.

IV. 성별에 따른 언어적 특징

1. 음운 및 표기적 특징

일반적으로 된소리 현상은 여성에게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보고된다. 예를 들어, ‘다른 거’를 ‘따른 거’, ‘조금’을 ‘쪼끔’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권경근 외, 2016:63). 그러나 자료에 나타난 된소리 현상은 1)사투리로 인한 영향¹³⁾, 2)지식 부족에서 온 잘못된 표기, 3)통신 분위기를 위한 바꾸어

13) 조사 대상 지역이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된소리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정복(2015)에서는 통신 언어 영역 가운데 대화방에서 방언이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한다. 대화방은 입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양방향적 언어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카카오톡 역시 입말 중심으로 진행되는 양방향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방언이 사용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보자들의 성별에 따른

적기, 4) 발음나는 대로 적기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9) 된소리 현상의 사례

- ㄱ. 사투리로 인한 영향: 우짚꼬, 델꼬, 갈끄나, 빠져뿌까, 가뿌라, 우짜냐고, 만다꼬
- ㄴ. 지식 부족에서 온 잘못 적기: 내꺼, 줄꺼라고, 줄께요, 카톡할께용
- ㄷ. 통신 분위기를 위한 바꾸어 적기: 배곱땅, 아라똥, 안가야찌, 태워켰찌룽, 잇꾸
- ㄹ. 발음 나는 대로 적기: 알앗따, 늦어따

통신 언어의 음운적 현상은 하나의 현상이 아닌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꺼’, ‘줄께요’는 지식 부족에서 온 잘못 적기와 발음 나는 대로 적기에 모두 해당한다. 성별에 따라 된소리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성별에 따른 된소리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빈도(비율)	빈도(비율)
사투리 영향	7(23.3%)	1(2.5%)
지식 부족에 의한 잘못된 표기	13(43.3%)	22(55.0%)
통신 분위기를 위한 바꾸어 적기	3(10.0%)	8(20.0%)
발음나는 대로 적기	7(23.3%)	9(22.5%)
된소리 사용 내 빈도(비율)	30(100%)	40(100%)
전체 발화 단위 내 빈도(비율)	30(4.3%)/690(100%)	40(2.7%)/810(100%)

방언 사용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많았다고 보고했다.

전체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된소리를 많이 사용하였다. 여학생은 통신 분위기를 위한 바꾸어 적기가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사투리 영향으로 인한 된소리 사용에서 높게 나타났다.¹⁴⁾

‘ㄹ’ 첨가 현상 역시 여성에게 두드러진다고 보고된다. 예를 들어, ‘요걸로(요거로)’, ‘알아볼라구(알아보려고)’, ‘안 올래라다가(안 오려다가)’에서 보듯이, 여성들의 발음에는 불필요한 ‘ㄹ’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다(권경근 외, 2016:63). 그러나 필자의 자료에 의하면, ‘ㄹ’ 첨가 현상은 지식 부족에서 잘못 알고 있거나 사투리 영향으로 판단된다.

(20) ‘ㄹ’ 첨가 현상의 사례

- ㄱ. 남학생 사례: 웰케, 채울라고, 들올라, 쳐먹을라궁, 잘라구
- ㄴ. 여학생 사례: 그럴러고, 시집갈러고, 먹올라고, 갈러면

〈표7〉 성별에 따른 ‘ㄹ’ 첨가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ㄹ’ 첨가 빈도(비율)	13(1.9%)	6(0.7%)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ㄹ’ 첨가 현상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발화 단위 수에 비해 ‘ㄹ’ 첨가 빈도 수가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ㄹ’ 첨가 현상이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ㄹ’ 첨가 현상이 성별 표지가 되기보다는 사투리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ㅇ’ 첨가 현상은 본래 형식의 마지막 음절에 ‘ㅇ’를 첨가시킴으로써 통

14) 지식 부족에 의한 잘못된 표기의 사례는 발음 나는 대로 적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합쳐 본다면, 남학생이 20(70.0%), 여학생이 31(77.5%)로 나타난다.

신 분위기를 생기 있고 부드럽게 만든다.

(21) ‘ㅇ’ 첨가 사례 [연인 관계]

연인(여): 수업잘 들으송

연인(남): 양(반함)¹⁵⁾

연인(남): 옷내리지마잉 출당

연인(여): 자기두♥

(21)의 연인 관계 대화에서 연달아 나타나는 ‘ㅇ’ 첨가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말은 상호작용적이어서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대응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표8> 성별에 따른 ‘ㅇ’ 첨가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ㅇ’ 첨가 빈도(비율)	96(13.9%)	122(15.1%)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표8>에서 보듯이, ‘ㅇ’ 첨가 현상은 여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표9>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연인 관계일 때 ‘ㅇ’ 첨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오히려 여학생보다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연인 관계에서는 남학생이 의도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위해 여자친구의 말에 대응적으로 ‘ㅇ’을 첨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15) PC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자료를 복사하여 한글 파일에 붙이면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고 ‘(반함)’처럼 괄호해서 이미지말이 표시된다.

〈표9〉 대화자 관계에 따른 ‘ㅇ’ 첨가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선후배 관계	18(8.6%)	26(9.0%)
친구 관계	24(9.4%)	42(17.1%)
연인 관계	54(23.9%)	54(19.7%)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모음 변형은 1)발음 나는 대로 적기, 2)이중 모음을 단모음화하는 경우, 3)통신 분위기를 위한 경우, 4)구어적인 표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22) 모음 변형의 유형

- ㄱ. 발음 나는 대로 적기: 마치며느, 안되어
- ㄴ.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머함, 먼데, 머해요, 담에바, 꼬셔바, 고마영, 안대안대
- ㄷ. 이중모음화: 자가, 물어보장, 배고프당, 그러장, 보러가장
- ㄹ. 사투리 표현: 그라자, 드릅다

〈표10〉 성별에 따른 모음 변형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모음 변형 빈도(비율)	46(6.7%)	58(7.2%)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성별에 따른 모음 변형 사용 빈도는 여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모음 변형을 규칙적으로 사용한 반면, 남학생은 사투리 표현이 많다.

‘ㅅ’ 탈락 현상은 쌍자음을 하나로 줄여 쓰는 것이다. 우리말은 특히 용언에 ‘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쌍자음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판을 더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표11〉 성별에 따른 ‘ㅅ’ 탈락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ㅅ’ 탈락 빈도(비율)	4(0.6%)	84(10.4%)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ㅅ’ 탈락 현상은 남학생에서는 드물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서는 일정한 빈도로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오타는 자판상에서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와 맞춤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기는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가 있다.

(23) 오타의 사례

- ㄱ.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 월요일, 지뫼아, 대기중, 저녁애, 시간있으
 니다면, 내카록, 할일없어, 만났자, 스케질, 브루마불
- ㄴ.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 혼자오던지, 어제밤, 갈켜도, 생각이였어,
 안바겼나, 웬만하면

〈표12〉 성별에 따른 오타 빈도

	남학생	여학생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	66(79.5%)	35(60.3%)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	17(20.5%)	23(39.7%)
오타 내 빈도(비율)	83(100%)	58(100%)
전체 발화 단위 내 빈도(비율)	83(12.2%) /690(100%)	58(7.1%) /810(100%)

성별에 따른 오타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오타 빈도가 높았다. 특히 남학생은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보다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 빈도

가 더 높았다. 여학생도 물론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가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냈지만 남학생의 유형 간 격차보다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료에 나타난, 여학생의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타로써 지적된 것은 ‘-꺼야나 ‘-크께’ 형식이다. 이것은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¹⁶⁾

성별에 따른 음운·표기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된소리 사용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남학생은 사투리 영향으로 인한 된소리가, 여학생은 지식 부족에서 나온, 통신 분위기를 위한 된소리가 많이 사용되었다. ‘ㄱ’ 첨가 현상은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 부족이나 사투리 영향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된소리 현상과 ‘ㄱ’ 첨가 현상은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조사 대상자의 출신 지역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ㅇ’ 첨가 현상은 여학생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연인 관계에서 남성도 대칭적으로 사용하였다. 모음 변형은 여학생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ㅅ’ 탈락 현상은 남학생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여학생에게서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차라기보다 개인차로 볼 수 있다. 오타의 빈도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단순한 타자 실수로 인한 오타 빈도가 높았다. 여성이 표준어나 규범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하듯, 여학생은 오타가 발생하여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2. 어휘 및 기타 특징

어휘 및 기타 특징에서는 성별에 따라 1)의성어, 2)이모티콘, 3)문장부호, 4)비속어 및 유행어의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겠다.

감탄사를 포함한 의성어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16) 발화에 나타나는 남녀의 표현 차이에 대해서는 전혜영(2004)를 참고할 것.

사례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13〉 성별에 따른 의성어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의성어 빈도(비율)	50(7.2%)	59(7.3%)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24) 성별에 따른 의성어의 사례

- ㄱ. 남학생 사례: 아, 아나, 아놔, 아싸, 아아, 앓싸, 오, 올, 오왕, 오잉오
 잉, 우와, 우왕, 음, 헐, 헤헤, 헤헤헤헹, 흐억, 흙, ힹ, 횡
- ㄴ. 여학생 사례: 뽕, 아, 아나, 악, 아응, 야, 어머, 오, 오오, 와, 율, 우와,
 으, 크, 키키, 퓨, 하, 휴, 허, 헉, 헐, 흐엉, 흑, 흑흑, 흙, 히히, ힹ

성별에 따른 의성어를 살펴볼 때, 서로 변별될 수 있는 의성어는 남학생의 경우 ‘아싸/앓싸, 오왕/우와/우왕, 헤헤/헤헤헤헹’, 여학생은 ‘아응, 어머, 크, 키키, 퓨, 휴, 히히’ 등이다. 이들은 어감에서 차이가 나며 성별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모티콘은 조합형 이모티콘과 한글 자모 이모티콘, 그리고 완성형 이모티콘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표 14〉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조합형 이모티콘	13(2.7%)	35(6.7%)
한글 자모 이모티콘	450(92.8%)	448(86.3%)
완성형 이모티콘	22(4.5%)	36(6.9%)
이모티콘 내 빈도(비율)	485(100%)	519(100%)
전체 발화 단위 내 빈도(비율)	485(70.3%)/ 690(100%)	519(64.1%)/ 810(100%)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빈도로 봤을 때, 남학생의 이모티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¹⁷⁾ 그러나 유형별 사용 빈도를 보면, 조합형 이모티콘이나 완성형 이모티콘은 여학생이 많이 사용한 반면, 남학생은 한글 자모 이모티콘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기호를 이용해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새 창을 열어 완성형 이모티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워, 자판에 있는 한글 자모를 손쉽게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대화자 관계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빈도를 살펴봤을 때, 친구 관계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모티콘 사용 빈도가 높게 나왔다. 이 역시 남학생이 한글 자모 이모티콘을 이용해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

17) 크리스털(2011:122)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연구에서 이모티콘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많았다고 지적한다. 박선우 외(2014:110)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5배의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의 차이는 한글 자모 이모티콘을 이모티콘 분류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15〉 대화자 관계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선후배 관계	149(30.7%)	153(29.5%)
친구 관계	198(40.8%)	215(41.4%)
연인 관계	138(28.5%)	151(29.1%)
전체	485(100%)	519(100%)

자료에 나타난 문장부호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줄임표)’, ‘~(물결표)’이다. 성별에 따른 문장부호 유형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4% 정도 더 문장부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물음표, 줄임표, 물결표, 느낌표, 마침표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¹⁸⁾ 일반적인 글말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마침표가 가장 적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빈도가 (오타를 제외하면) 1% 미만이다. 그리고 글말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줄임표, 물결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들은 비대면 대화에서 화자의 감정이나 상태, 어조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본래 가지고 있는 문장부호의 의미에서 확장하여 사용한 것이다. 성별에 따라 사용 빈도를 보았을 때는 남학생이 물음표, 느낌표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여학생이 마침표, 줄임표, 물결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남학생은 어조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물음표를 사용하였으며, 여학생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18) 박선우 외(2014)에서는 여성의 문장부호 사용량이 남성보다 1.6배 많았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텍스트당 문장부호의 개수를 양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과 느낌을 드러내는 문장부호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일반적인 추측과 연구 결과가 달리 나타난 것은 이 연구대상이 사교적 기능이 강한 메체이고 비교적 친분이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이어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이모티콘이나 문장부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줄임표와 물결표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16〉 성별에 따른 문장부호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마침표	4(2.0%)	5(2.3%)
물음표	115(56.4%)	116(52.7%)
느낌표	15(7.4%)	14(6.4%)
줄임표	38(18.6%)	45(20.5%)
물결표	32(15.7%)	40(18.2%)
문장부호 내 빈도(비율)	204(100%)	220(100%)
전체 발화 단위 내 빈도(비율)	204(29.6%) /690(100%)	220(27.2%) /810(100%)

비속어 및 유행어 사용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료 대상이 남녀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상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다 하더라도 강도가 약하거나 유행하는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료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비속어가 있는 대화는 첨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표17〉 성별에 따른 비속어 및 유행어 사용 빈도¹⁹⁾

	남학생	여학생
빈도(비율)	8(1.2%)	13(1.6%)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25) 성별에 따른 비속어 및 유행어 사례

- ㄱ. 남학생 사례: 갈귀서, 개판이여, 빠시네, 찻는, 찡부럽다, 찡다, 찡어, 헐

19) 비속어와 유행어를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행어 중에서도 비속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ㄴ. 여학생 사례: 뜯끼, 발라버려라, 왕비싸다, 왕예뿌겠다, 짱난다, 짱이
당, 쯤네, 쯤다, 헐

성별에 따른 비속어 및 유행어 사용 빈도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속어 및 유행어를 0.4% 더 사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례 (25)를 보면, 남학생은 비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특정한 명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외는 주로 유행어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유행어 중에서도 비속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주 사용된다.

〈표18〉 대화자 관계에 따른 비속어 및 유행어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선후배 관계	2(0.3%)	8(1.0%)
친구 관계	6(0.9%)	2(0.2%)
연인 관계	0	4(0.5%)
빈도(비율)	8(1.2%)	14(1.7%)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690(100%)	810(100%)

대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은 친밀한 관계에서 제3자나 어떤 상황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속어가 나타난 대화자 관계를 살펴보니, 친밀도가 높은 선후배 관계와 친구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인 관계의 경우 모두 유행어에 해당하는 것이 사용되었다.

3. 통사적 특징

카카오톡은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어, 문장을 완결짓지 않고 말하는 대로 끊어서 적기도 한다. 발화 단위를 짧게 적으면 읽기에 쉽고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문장을 길게 적으면 글을 쓸 동안 상대는

기다려야 하기에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도 짧게 쓰고 전송하는 것이다.

(26) 문장 끊어쓰기 사례

- ㄱ. 내가맨날 먼저 연락하고/쉽습디
- ㄴ. 우리는/서로배려를 하는데
- ㄷ. 세개 쓰면/두개만 가고/한개(개) 늦게 보내짐..ㅋㅋㅋ

(27) TJ: 이번주는 금요일밖에 저녁안될듯ㅋㅋㅋ

A양: 뭔데 바쁜척이고ㅋㅋㅋㅋ

TJ: 좀 튕겨줘야지ㅋㅋ

TJ: 내가 물준데 ㅋㅋ

A양: ㅋㅋㅋㅋㅋㅋ

A양: 그럼 금요일

A양: 저녁

A양: 사취

TJ: 금요일 저녁 ㅋㅋㅋ

(26)에서 접속조사, 주어, 연결어미 뒤에서 문장을 끊어 썼으며, 보통의 경우 접속조사나 연결어미 뒤에서 끊어쓰는 경우가 많다. (27)의 경우 ‘그럼 금요일(에) 저녁(을) 사취’라는 문장에서 시간부사어, 목적어, 술어를 조사도 생략한 채 세 단위로 끊어 적었다. (27)은 친구가 밥 사주기로 한 상황에서, 친구가 바쁘다고 하자 날짜와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각각의 발화 단위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문장 끊어쓰기 사용 정도를 살펴보니, 남학생이 문장을 끊어 적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²⁰⁾ 문장을 끊어 적을 경우, 하나의 문장을 2-3회에

20) 크리스털(2011:121)은 성별에 따른 문자 메시지 이용 방식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긴 메시지를 쓴다고 했다. 문장 끊어쓰기도 같은 맥락에서

걸쳐 나누어 적는다.

〈표19〉 성별에 따른 문장 끊어쓰기 사용 정도

	남학생	여학생
횟수(비율)	34회	30회
발화 단위 수 /전체 발화 단위 수(비율)	72(10.4%) /690(100%)	73(9.0%) /810(100%)
발화 단위/횟수	2.1/1회	2.4/1회

대화자 관계에 따른 문장 끊어쓰기 사용 빈도를 보면, 친구 관계일 때 끊어쓰는 빈도가 가장 높다. 발화 단위를 끊어적는 것은 격식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대화자 관계의 격식성과 친밀도에 따라 문장의 완성도, 끊어적기가 달라질 수 있다.

〈표20〉 대화자 관계에 따른 문장 끊어쓰기 사용 빈도

	남학생	여학생	총
선후배 관계	10(29.4%)	8(26.7%)	18(28.1%)
친구 관계	18(52.9%)	11(36.7%)	29(45.3%)
연인 관계	6(17.6%)	11(36.7%)	17(26.6%)
총	34(100%)	30(100%)	64(100%)

성별에 따른 통사적 특징으로는 문장 끊어쓰기 사용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남학생이 문장을 끊어 쓰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았다. 그리고 대화자 관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친구관계일 때 문장을 끊어 쓰는 빈도가 높다. 남학생은 친구 관계일 때, 여학생은 친구와 연인 관계일 때, 문장을 끊어 쓰는 빈도가 높았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글쓰기를 의식하지 않고 말

볼 수 있다.

하듯이 운율단위로 문장을 끊어 쓴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별어는 음운, 어휘, 문법, 그리고 담화 상황에서의 화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별어를 언어 형식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언어 사용에서 차이는 언어로 구분짓는다면, 한국어는 후자에 속한다. 그러한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성별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사회·문화적인 조건, 작게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 발화 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별언어를 논의한다는 것은 언어 자체에 존재하는 성별적인 차이가 아닌 실제 특정 상황에서 발화할 때의 남성적 또는 여성적 특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모이, 2015:23)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통신상에서, 특히 범국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매체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언어적 특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카카오톡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통신 언어의 일종으로, 기존의 통신 언어가 지니는 공통적인 언어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는, 카카오톡 매체가 가지는 즉시성, 준구어성, 사적 관계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언어에서도 그런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성별 언어 사용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었으나 성별 언어 사용은 대화 상대자의 성별, 대화자 관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최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성별에 따른 언어 선택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부장제의 동요,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인터넷을 통한 지구촌화 등의 영향으로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없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제한된 자료라는 측면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범국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체의 사례를 통해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했고,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 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권경근 외,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 박이정, 2016.
- 데이비드 크리스털, 『문자메시지는 언어의 재앙일까? 진화일까?』, 알마, 2011.
- 모 이, 『한·중 남녀의 성별 발화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선우·박진아·홍정의, 『SNS 모바일 텍스트의 언어학적 양상: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82, 2014.
- 서은아, 『글쓰기로써 말하기 또는 네티즌의 폼글, 댓글, 베플, 악플, 아이디 그리고 이모티콘의 언어학적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이정복, 『인터넷 매체와 지역 방언』, 『방언학』 22, 한국방언학회, 2015.
- 전혜영, 『남자와 여자의 언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14-4, 국립국어원, 2004.
- 최명원·김선영·김지혜·이애경, 『SNS 메신저 ‘카카오톡’ 언어현상 연구』, 『텍스트언어학』 3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2.
- 허상희, 『대학생의 카카오톡 언어 사용 분석』, 『한글』 314집, 한글학회, 2016.

2. 기사

- 나윤정, 『바뀐 문장부호, 얼마나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2015.5.12.
- 성상훈, 『가벼워지는 네이버 vs. 무거워지는 카카오톡』, 아이뉴스 24, 2016.9.12.
- 원수연, 『네이버 앱스토리』, 2015년 9월호.

3. 인터넷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Abstract

An Analysis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use
by gender in KakaoTalk

Hur, Sang-hee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linguistic characteristic in KakaoTalk. The KakaoTalk as a messenger is written by letter but has the property of quasi-spoken language, private media based on personal relationship. As a net language, the KakaoTalk language writes in short and diversely the purpose of economics and fun. The utterance unit of KakaoTalk is various, uses cutting a sentence off and also doesn't match rhythmic unit with syntax structure. The use of onomatopopia, emoticon and punctuation marks play a role of semi-linguistic or non-linguistic expression in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characteristic by gender is as follows. First, in the characteristic of phoneme and writing, male students use tensification and 'ㄷ' addition, female students 'ㅇ' addition, vowel modification and 'ㄹ' elision in high frequency. Second, in the characteristic of vocaburary and the others, female students use a few kinds of emoticon, male students use vowel and consonant of hangeul especially. Also male students use punctuation marks in high frequency, was similar to female students in the aspect and frequency. Male students use a slang than female, female students use a buzzword than male. Third, in the characteristic of syntax, male students often use cutting a sentence off. Also it frequently uses when communicators are friends.

Key Word : KakaoTalk, gender language, phoneme addition, vowel modification, 'ㄹ' elision, utterance unit, onomatopopia, emoticon, punctuation, slang, buzzword

허상희

소속 : 인제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전자우편 : sh1260@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